

강사가 앞에 네 명의 학생을 책상에 앉혀놓고 이야기 책과 활동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준비해 간 내용을 전달하려면 강사는 열심히 달려야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안타깝다고 느껴질 만큼, 한 아이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한 아이는 고개가 무거운지 교실 바닥을 향해 숙여 있고, 한 아이는 잠이 와서 인지 눈을 뜨지 않는다.

또 다른 한 아이는 강사를 무시하리라도 하려는 듯이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 끄적하며 한 쪽 다리를 쪽뻗어 흔들면서 수업시간 내내 알아 들을 수 없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지경이면 화가 날만도 하고 옆에 있던 담임에게 못하겠다고 교실을 박차고 나올 법도 하건만 강사는 열과 성을 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애들이 너무 예쁘다” 반응

수업을 마친 강사에게 힘들지 않았냐며 수업을 마친 소감을 물으니 “힘들었다”는 말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했다. 의외의 답에 강사를 바라보았지만 강사는 천사가 아니었고 사람이었다. 그곳은 각자의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진짜 예쁜 아이들이 있는 다름 아닌 초등학교 도육반 교실이었다.

수업 모니터링을 마치고 가려는데, 학교에서는 콧노래를 부르는 아이 때문에 골치라며 상담을 요청해 교장실에 갔더니

전 매 광 장

대유민

전남청소년문화센터장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겠습니까?

담임과 특수교사가 앉아서 팽팽하게 의견 대립 중이었다. 담임입장에서는 급식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앞에 있는 친구의 등을 만진 것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이고, 수업 중에 성기를 만진 손으로 다른 친구의 반응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만지려 해 성폭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른 친구의 등을 살짝 두 손으로 치는 게 버릇이고, 장애가 심한 아이가 성기를 만진 손으로 다른 친구의 반응을 보려고 의도했겠냐는 것이다.

다른 교사들도, 그 아이의 행동은 성폭력이기 때문에 통합반에서 분리해 도육반에서만 수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중간에서 듣고 있지만 그 아

이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 난감했다.

장애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물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발달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그 아이를 두고 성폭력을 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워 그 아이를 만나봐야 했다.

그 아이는 수업 중에 했듯이 종이에 계속 핑거를 끄적끄적 하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부르며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물론 성폭력 가해자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장

애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이나 불이익 등을 줘서 낙인을 찍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비장애 학생이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성폭력으로 볼 것인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각 점검이 필요하리라 본다. 안경점에는 여러 색의 안경이 있고 골라 끼는 것 또한 자유이지만,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며 투명한 안경을 쓰고 보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아치와 같다.

그동안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제도가 마련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장애학생이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낙인찍기의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장애인을 올바르게 바라 볼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일반 시민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누구보다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인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 주변인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속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 설

호남권 공항 안전시설도 확대인가

광주와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교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이 가중치까지 포함된 '내용연수'를 1~3년 초과해서 운용되고 있다. 지방 공항 항행안전시설 대부분이 적정 내용연수를 충족해 교체하고 있음에도 호남권 공항만 유독 교체 시기가 초과됐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를 빚게 됐는지 정부 당국은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은 계기착륙, 무선 반시미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누구보다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인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 주변인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살인 부른 '층간소음' 특단 대책 필요

지난 27일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를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같은동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위층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다투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집간의 폭력·살인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북구갑)이 최근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

년 4만2500건으로 10년 새 4.8배나 급증했다.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방치질 2,588(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은 민감한 사안이다. 당사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는다. 공동주택에 사는 한 피해 수 없다면 이웃 간의 양보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웃끼리 배려와 예절,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요구된다. 이것이 없다면 그 어떤 법적 기준의 강제도 실효성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에 세 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아침잠을 털어내자마자 서둘러 마당을 쓴다. 이 집으로 이사한 후, 비가 오는 날이 아니고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밤새 내린 이슬의 감촉이 손끝에 축축이 감겨온다. 대빗자루 끝이 흙을 파고들어 그림 아닌 그림이 그려질 만큼 흙을 다한다. 얼핏 말하자면 마당을 쓴다기보다는 미세하게나마 흙을 뒤엎는다고나 할까.

집주인이 되어 아홉 해가 흐른 지금까지 뜰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흙 마당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뒷밭 자리를 떼어 내고, 다실(茶室)로 사용할 별채 자리도 제법 잘라

갔다. 온 마당 가득 일년초를 심어 사계절 피고 지게 하는 일은 평생의 중요한 숙원 사업이건만, 남편은 유실수를 심으려고 호시탐탐 내 땅을 노리고 있다. 더구나 오다가다 들른 동네 사람들은 잡초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 잔디를 심으라고 틈만 나면 중용하고 있으니... 하기가 동네에 새로 지은 집들은 대부분 푸른 잔디가 깔려 있다. 산책길에 들어가볼 때마다 특별히 정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그 푸른색 하나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매번 가졌었다.

이러저러 사연들이 있기는 했으나 깨끗하게 흙 마당을 꾸려 가고 있다. 마당을 쓰고 다듬는 것은 단지 너저분한 쓰레기만을 치우는 일이 아니다. 흙을 뒤집어 숨을 쉬게 해주는, 그야말로 흙을 가꾸는 일이다. 이끼나 풀이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흙이 살아나 온 마당이 불그레하게 운기가 돈다.

요즈음은 집에 들르는 사람들마다 흙 마당을 칭찬하곤 한다. 별채 앞에 현대식 바닥재를 깔고 편한 의자까지 마련해 놓았건만, 모두가 감나무 아래 흙 마당 평상으로 달려든다. 달과 별이 뜬 밤, 마당 가운데 모닥불이라도 피우노라면 그야말로 하늘도 땅도 인간도 하나 되어 어우러

마 당

진다. 서양식 정원이 시각으로 즐기는 공간이라면 우리의 마당은 몸을 담고 활동하는 생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추수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타작을 하는 일터였으며, 명석을 깔고 곡식과 채소를 널며 독특한 풍경의 건조장이 되었다. 평생 하나를 터 놓으면 가족의 쉼터요, 아이들의 놀이터다.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은 명절 때마다 펼쳐지던 마당놀이이다. 정월 대보름마다 장관을 이루는 달집태우기도, 한가위 달빛 아래서 보름달보다 더 환한 얼굴로 고모, 언니들이 펼치는 강강술래도, 온 마당을 웃음바다로 만들던 아래 뜰 당숙모의 '뽕추춤'도 모두 동네 어느 집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정서 안에는 한마당 질펀하게 어우러져서 있고 싶은 심사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꿈틀거린다. 무대라는 공간이 감성하는 것에 그치는 공연자의 것이라면, 마당은 흥이 나면 언제든 뛰어 들어 함께할 수 있는 관람자의 것이라고 할까. 민가는 물론이고 궁중에서까지 펼쳐지던 '나례화'와 '산대놀이'로부터 시작해 악공집단인 광대들의 '사당패 놀이'는 민중들의 애환을 풀어 주는 큰 위안물이었다. 그것을 재연한 영화 '왕의

남자'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이유 역시 우연이 아니다.

전통 마당은 현대인들의 닫힌 정서와는 달리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물건을 팔러온 보부상도, 시주하러 온 스님도, 심지어는 동냥하러 온 거지들도 대부분 마당까지를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다. 그야말로 활짝 열린 응접실이었던 셈이다.

여기저기서 '설 자리(마당)가 없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마당히 함께할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부 잘하는 청소년만이, 근사한 직업을 가진 젊은이만이, 부유하고 건강할 노인만이 근사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다. 사회 곳곳에 뛰어난 배우들이 공연하는 무대는 넘칠 만큼 많은데 그림의 떡일 뿐 함께 뛰어들어 즐길만한 보통 사람들의 마당이 없다. 특별하지 않아도 흥과 정과 관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이 벌어지고,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옛날 마당 잔치에 어울려 한바탕 휘몰아치고 싶은 생각 간절하다.

누군가 온다는 약속도 없는데 대문 빗장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마당을 쓴다.

특 지 광 장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준다.

주택용 소방시설 알고 있나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신길동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나는 감지기의 경보음을 옆집 거주자가 듣고, 신속히 소방서로 신고해 화재 확대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갖는

다.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간편한 사용 방법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도구이다. 지난 7월 순창 쌍치면의 한 주택에서는 운수기로부터 일어난 화재를 미리 비치해 놓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효성을 체험할 수

있는 두 사건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전의 주택은 소급설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다. /이재용 화재소방사 예방홍보팀 소방교

'청소년 무면허 운전' 근본 원인 해결해야

기 지 수 접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부모나 지인의 차를 몰래 타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차량 공유 앱을 통한 명의도용부터 브로커를 이용한 전문 범죄까지 번지는 등 대담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사고는 17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812건)의 약 21%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엔 화순에서 도용받은 명의로 차를 빌려 친구들과 운전하던 10대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명의도용 처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운수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 강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처벌 강화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배경에 약한 처벌 수위도 큰 몫을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 사화방사, 소액의 벌금형 등으로



김민빈
사회부 기자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행위로, 운전 실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주체될 때는 더욱 위험하다. 신호와 속도위반이 뒤따르며 친구들과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같은 사고도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을 향한 처벌 수위 검토 이전에 우선시되어야 할 점은 교육체계 마련과 근본적 원인 해결이다. 호기심으로 발생하는 일이니만큼 위험성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운전의 배경에 약한 처벌 수위도 큰 몫을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 사화방사, 소액의 벌금형 등으로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賢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 회 2 부 (062) 720-1043	동 부 권 본 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전 부 (062) 720-1040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사 회 1 부 (062) 720-1043	동 부 권 본 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전 부 (062) 720-104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편집부 (062) 720-1073	논 설 실 (062) 720-1006	전 산 실 (062) 720-1033	필 간 국 (062) 720-1007	판 매 국 (062) 720-1004	사 업 국 (062) 720-1011,1099
광 공 국 (062) 720-1016-17	관 리 국 (062) 720-1012	광 공 국 (062) 720-1016-17	관 리 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